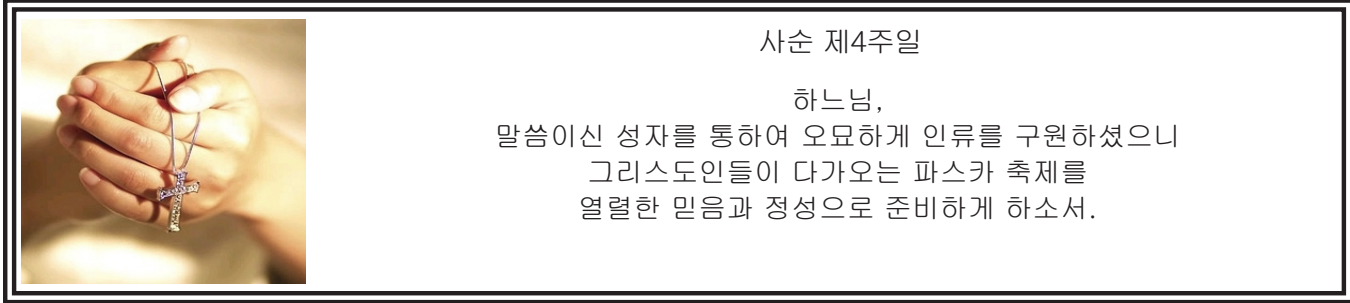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사순 제4주일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 사순시기 안내

- 사순시기의 의미 : 재의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참회와 극기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루는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시기 동안 주일미사 40분 전에 시작합니다.

■ 성주간 전례 안내

- 3/25(일) 오전11:00, 주님 수난 성지 주일(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미사)
- 3/27(화) 오전11:00, 교구 성유축성미사(본당 저녁미사 없음)
- 3/29(목) 저녁 8:00, 주님 만찬 성목요일(미사-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헌금,발씻김 예절, 미사 후 성체조배)
- 3/30(금) 오전10:00, 십자가의 길 기도, 저녁 8:00,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절(예루살렘 성지복구 헌금, 십자가 경배)
- 3/31(토) 저녁 8:00,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 4/ 1(일) 오전11:00, 예수 부활 대축일(라이스보울 봉헌)
- ※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후, 성체조배 신청을 받습니다.

■ 본당 부활 합동판공 고해성사

- 집전시간 : 3/16(금) 저녁7:00에 공동참회예식으로 시작
- 초청사제 : 오마하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

■ 사순 제5주일, 사순 특강

- 미사 : 3/18(주일) 11:00, 미사 강론 중.
- 주례 : 오클라호마 한인성당 박세훈 루이몽플 신부님
-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합동판공고해성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한하여, 고해성사 있습니다.

■ 부활절 맞이 성당 대청소

- 일시 : 3/25(주일) 교중 미사 후, 식사 전.

■ 부활 대축일 전례꽃 봉헌 안내

- 내용: 전례부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3/11)	123	340	174	177
차 주 (3/18)	118	215	500	121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중 복사
		제2독서	항 복사
금 주 (3/11)	김주연 세실리아	전용진 로렌스	정예진 한나
		조진환 베드로	정예찬 미카엘
차 주 (3/18)	김대연 요셉	박태주 로마노	차민서 임마누엘
		김명희 리드비나	이원준 요한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김말자, 김화년, 안현숙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우금
3/4	36 명	152 달러	400 달러
(총 2 세대)			

사순 제4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

2018년 3월 11일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in Kansas C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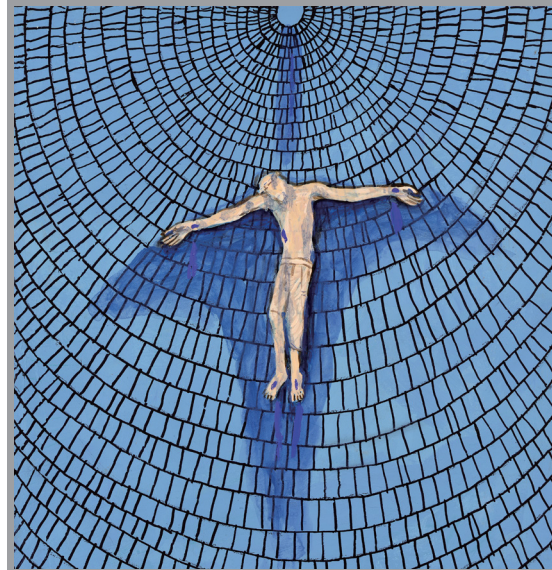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선하고 진실하신 하느님께서 끝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성자의 십자가로 악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그림 묵상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람의 아들은 높이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빛을 따를 것인지 어둠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역대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36,14-16.19-23

<이스라엘 백성의 유배와 해방으로 주님의 분노와 자비가 드러난다.>

화답송 :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

○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2,4-10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여러분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4-21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

래따레(Laetare)

1. “바빌론 유배에서 예루살렘으로”(2역대 36,19-23 참조) 오늘 화답송은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시편 137,1)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른바 ‘모세의 구리뿔’(민수 21,4-9 참조)을 통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 충실하며 살도록 이끌어 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갖 역겨운 짓으로 주님을 크게 배신하며 살게 되었고, 결국 바빌론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배생활 중에 ‘바빌론 강 기슭’은 ‘주님 체험의 기억을 통한 회심의 자리’였습니다. 그 ‘기억과 회심’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키루스의 칙령’(2역대 36,22-23 참조)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향케 하셨습니다.

2. “죽음에서 구원으로”(에페 2,4-7 참조)가끔 10년이 넘도록 쉬던 교우들이 고백성사 도중에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눈물은 자신들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 다시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은총의 체험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개가 “주님께 다시 의탁해 보려고 왔습니다.”라는 말로써 조심스레 자신들의 희망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희망 없이 살게 됩니다.”(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23항)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3. “누구나 영원한 생명으로”(요한 3,14-16 참조)올해 서품된 홍성원 신부님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요한 3,8)를 서품 성구로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뜻에 의탁하며 사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니코데모도 늘 그와 같은 열망을 품고 살았던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갈망을 들고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았고, 마침내 ‘밤을 몰아내 버리는 빛’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니코데모와 같은 ‘참된 열망과 빛을 향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4.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사순 제4주일은 래따레(Laetare) 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래따레’는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하고 외치는 라틴어 입당송의 첫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때문에 오늘 전례는 부활의 서광을 목전에 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승리’(요한 3,14 참조)를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빛을 향해’(요한 3,21 참조) 곳곳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드리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총명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여라, 이렇게 되는 백성! 즐거워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시편 144,15 참조)

정연정신부 | 절두산순교성지 주임

Laetare Sunday

The Fourth Sunday of Lent is called **Laetare Sunday**, from the first words of the Introit at Mass, "Laetare Jerusalem" ("Rejoice, O Jerusalem").

Like Gaudete Sunday midway through Advent, Laetare reminds us of the event we look forward to at the end of the penitential season and the joy in anticipation of the Resurrection. The vestments for this day will be rose, as they are on Gaudete Sunday in Advent.

Catholic Fortress

한국천주교회

3대 교구장 (프랑스) 1839년~1853년 페레올(Ferreol, 고)주교

페레올 주교님에 대한 이런 글이 기억납니다. “10년간 조선 교회 이끈 페레올, 그의 세 가지 업적” 궁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업적을 꼼꼼히 읽어보기로 합니다.

“페레올 주교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인 성직자 양성의 결실을 거뒀을 뿐 아니라 그 기초를 놓기 위해 조선에 신학교를 설립한 공로다. 둘째, 「기해-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작성해 이들의 시복시성 재판에 결정적 증거 자료를 남긴 점이다. 셋째, 바다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조선 입국로를 개척한 부분이다.”(가톨릭평화신문, 2017년 2월 5일자) 2018년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 안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는 첫 열매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입니다. 바로 이 두 분에게 1844년 차부제품과 부제품을 주었던 분은 바로 페레올 주교님입니다. 1845년 김대건 신부님에게 사제품을 준 분도 페레올 주교님입니다.

조선이라는 선교지에서 힘들게 신학생을 선출하고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하며 결국엔 그들에게 첫 번째 신부님과 두 번째 신부님을 선물해주신 페레올 주교님의 배려를 기억합니다. 언젠가 베트남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을 때도 우리나라 수녀님들이 사복을 입고 현지 출신 수녀님들을 양성하고 스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보고 감동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73년 전, 1845년에 우리가 선물 받았던 조선인 신부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그 나라 공동체를 지탱해주고 스스로 활동하게끔 도와주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를 깨닫게 합니다. 더불어 페레올 주교님의 두 번째 업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교님의 임기중에 있었던 기해박해(1839년), 병오박해(1846년)는 가톨릭 4대 박해에 속해있는 큰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주교님은 이때의 순교자들의 행적에 대한 중요한 증거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신 분입니다.

큰 박해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던 그때, 순교자들에 대한 위대한 행적들은 당시의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증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하지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모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때의 자료들은 후에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에 직접 자료로 인정되고 있음은 페레올 주교님 덕분입니다. 당장은 큰 박해 중에 있으나 훗날 우리 교회가 순교자들을 기억하게 하신 페레올 주교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그 첫걸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서울대교구는 사제가 900명이 넘는 큰 교구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교님. 이도행 토마스 신부



· 1838년 9월 14일 보좌 주교로 임명.
· 이듬해 9월 교구장직을 승계하였으나, 1843년에 가서야 임명장을 받고 12월 31일에 성서.
· 1845년 10월 12일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인도로 조선에 입국.
· 1853년 2월 3일에 과로와 병으로 선종하여 미리내 김대건 신부의 무덤 옆에 안장됨.

교리상식

그리스도교 신자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교 신자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한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분이시라고 믿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살아가면서 직접 보여 주는 사람’,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 ‘성사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비 신자 궁금증 105가지」 | 가톨릭출판사